

研究論文

동작 동사 파생과 동작성:^{*}

-‘-거리-, -대-, -이-’의 동작성 구명을 중심으로 -

이 은 섭**

| | |
|-------------------------|--------------------------------|
| I. 서론 | III. 접미사 ‘-거리, -대, -아’의 이질적 속성 |
| II. 선행 어근의 목록 추출과 속성 기술 | IV. 결론 |

I. 서론

본고는 현대 국어의 동사 파생 접미사 ‘-거리, -대, -아’에 대해 고찰한다. 흔히 이 세 접미사는 동작성을 지니고 있는 어근과 결합하여 동작 동사를 파생시키는 형태소로 인식되고 있다.¹⁾ 예를 들어 비교적 최근의 논의인 이익섭·채완²⁾에 서도 ‘-거리, -대, -아’를 동사 형성 접미사로 분류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는 ‘-거리’와 ‘-대’가 가장 생산적인 동사 파생 접미사로 분포와 기능이 거의 같아서 이들이 결합된 두 짝은 흔히 동의어로 처리되어 왔다고 언급한다. 또한 이 논의에서는 이들의 의미를 모두 동작성을 지니는 어기와 결합하여 ‘어기의 동작을 지속 받

* 본고는 2003년 10월 5일에 개최된 조선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 일본 게이오 대학 초빙 방문 강사, 국어 문법론 전공

1)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세 접미사 이외에도 동작 동사 파생에 관여하는 접미사로 ‘-하’를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하’의 경우 세 접미사와는 달리, 형태론적으로 그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구명되지 않고 있다는 관점에 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를 일단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문제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2) 이익섭·채완, 『국어문법론강의』(학연사, 1999), 93, 110~111 쪽

복적으로 하다'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문법 기술의 측면에서 볼 때, 사전 기술을 포함한 기존의 논의들에는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우선, 선행 연구 업적들이 보여주는 자료의 성격이 지나치게 직관에 의존하고 있거나, 분석의 일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한 어근의 동작성이라는 개념이 피상적으로 적용되어 어근이 지닌 의미상의 미세한 차이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선행 연구 업적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의 사항은 우리가 고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접미사들의 연구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즉 어근이 지닌 동작성이 전체 파생 동사의 동작성을 부여하는지, 아니면 접미사가 어근의 의미 속성과 상관없이 파생 동사의 동작성을 부여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크게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접미사 '-거라, -대, -아'와 결합하여 파생된 동작 동사의 선행 어근을 추출하고, 그 어근들의 의미 속성을 살핀다. 이 과정에서 어근의 의미 속성을 포괄적인 개념의 동작성에서 보다 세분화된 의미 속성으로 기술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접미사 '-거라, -대, -아'가 어근과 결합시 보여주는 분포의 차이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세 접미사의 동작성의 정도 차이를 보다 정밀하게 기술할 것이다.

본고는 '세종 계획'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뭉치 자료를 활용한다. 모두 150만 어절로 이루어진 이 말뭉치는 문어 자료에서 추출한 것이다. 자연 언어 처리 과정에서 도출되는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논의의 객관성과 엄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 자료에서 본고가 다루고 있는 접사들과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어근들의 의미 속성을 주로 논의할 것이다.

II. 선행 어근의 목록 추출과 속성 기술

본 절에서는 접미사 '-거라, -대, -아'와 결합하는 어근들의 목록을 확인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1세기 세종 계획'의 150만 어절의 '형태 분석 말뭉치'를 MonoConc Pro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어근의 목록을 추출한다.³⁾

우리는 어근의 목록화 작업을 통해 우리는 직관에 의존하여 임의로 추출한 자료들이 자칫 연구자의 계산된 의도에 따라 조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비록 문어 자료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객관적인 언어 사실을 구현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제 해당 접사들과 결합하는 선행 어근들을 추출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그 출현 빈도를 살펴봄으로써 이 어근들이 지니고 있는 성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자.

1. 선행 어근의 목록

선행 어근의 목록 추출이 이들 세 접미사의 관계 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즉 이들 선행 어근의 목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접미사가 보여주는 결합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세 접미사가 결합함으로써 파생되는 동사가 동작 동사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 동사의 역할과 속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세 접미사가 보여주는 어근과의 결합 양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어근의 목록은 접미사 ‘-거리’, ‘-대’, ‘-아’와 결합하는 순서로 제시한다⁴⁾

1) ‘-거리-’의 선행 어근

우리는 세종 계획 150만 어절 말뭉치에서 접미사 ‘-거리’가 결합하는 어근들을 아래의 표 (1)과 같이 추출할 수 있다⁵⁾

-
- 3) ‘21세기 세종 계획’과 그에 관련된 말뭉치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임흥빈 외 『국어 문법 현상의 계량적 연구』(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의 머리말을 참조할 것.
- 4) 특히 ‘-거리’는 이 세 접미사 중 가장 많은 수의 어근과 결합하여 파생 과정에 활발히 참여하므로, 모든 어근을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한 이유로 ‘-거리’의 경우는 빈도수가 3회 이상인 어근의 경우를 위주로 논의하고 3회 미만인 어근은 필요할 경우에만 언급하도록 한다.
- 5) 발견된 어근의 총수는 310여 개에 달한다. 이는 물론 동일한 어형의 반복형까지를 포함한 숫자이다. 한편 위의 도표에서 제시된 어근 이외에 2회 발견된 어근은 아래 (1)과 같다.
- (1) 건들-, 굽산-, 깜빡-, 깡충-, 날름-, 널름-, 너털-, 달그락-, 털렁-, 털경-, 들췌-, 득시글-, 딱딱-, 말뚱-, 물썩-, 민기작-, 바둥-, 바스락-, 반들-, 법석-, 비양-, 비죽-, 빈들-, 빌발-, 빙글-, 뽀그닥-, 살살-, 생글-, 스탈-, 씹벼-, 씨근-, 악약-, 어기작-, 얼썩-, 얼췌-, 외글-, 움썩-, 웅왕-, 으르릉-

(1)

| 어근 | 출현 빈도 | 어근 | 출현 빈도 |
|-----|-------|-----|-------|-----|-------|-----|-------|------|-------|
| 중얼 | 52회 | 으르렁 | 12회 | 홍얼 | 7회 | 씩씩 | 5회 | 끄막 | 3회 |
| 끄닥 | 30회 | 버둥 | 10회 | 깔깔 | 6회 | 집적 | 5회 | 끄작 | 3회 |
| 두리번 | 29회 | 비아냥 | 10회 | 폼지랴 | 6회 | 쿵광 | 5회 | 나폴 | 3회 |
| 기웃 | 22회 | 웅얼 | 10회 | 길길 | 6회 | 토닥 | 5회 | 노닥 | 3회 |
| 머뭇 | 21회 | 우글 | 9회 | 뒤적 | 6회 | 퍼덕 | 5회 | 뒤작 | 3회 |
| 서성 | 21회 | 깡깡 | 8회 | 득실 | 6회 | 거들먹 | 4회 | 들락날락 | 3회 |
| 두근 | 20회 | 들락 | 8회 | 빈둥 | 6회 | 굽적 | 4회 | 들씩 | 3회 |
| 꿈틀 | 19회 | 들벅 | 8회 | 어정 | 6회 | 너울 | 4회 | 명명 | 3회 |
| 반짝 | 19회 | 소곤 | 8회 | 이글 | 6회 | 넘실 | 4회 | 멈칫 | 3회 |
| 투덜 | 17회 | 수곤 | 8회 | 일렁 | 6회 | 벌떡 | 4회 | 비그닥 | 3회 |
| 가웃 | 16회 | 어슬렁 | 8회 | 찼끔 | 6회 | 살랑 | 4회 | 비작 | 3회 |
| 깜박 | 14회 | 왕왕 | 8회 | 하늘 | 6회 | 실룩 | 4회 | 우쭈 | 3회 |
| 비틀 | 14회 | 웅웅 | 8회 | 휘청 | 6회 | 재갈 | 4회 | 절룩 | 3회 |
| 만지작 | 13회 | 쫙알 | 8회 | 흔들 | 6회 | 절뚝 | 4회 | 출렁 | 3회 |
| 허우적 | 13회 | 가우똥 | 7회 | 가물 | 5회 | 철버덕 | 4회 | 킁킁 | 3회 |
| 더듬 | 12회 | 빈장 | 7회 | 다독 | 5회 | 쿵쿵 | 4회 | 헐떡 | 3회 |
| 번들 | 12회 | 술렁 | 7회 | 번쩍 | 5회 | 허둥 | 4회 | 홀쭉 | 3회 |
| 어른 | 12회 | 이른 | 7회 | 복작 | 5회 | 화끈 | 4회 | 후들 | 3회 |
| 울렁 | 12회 | 종알 | 7회 | 삐걱 | 5회 | 근질 | 3회 | 홀쭉 | 3회 |
| 웅성 | 12회 | 찰브락 | 7회 | 수런 | 5회 | 글썽 | 3회 | 흐느적 | 3회 |

으쓱, 이죽, 재재, 주악, 주춤, 질척, 찼끔, 철거당, 콜록, 광광, 쿡쿡, 크르릉, 키들, 킬킬, 터덜, 폭삭, 한들, 헉헉, 히히덕

한편 한 번만 출현한 어근은 다음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욱 많은 수를 차지한다

- (2) 가르랑, 가물가물, 거드러, 길근, 길리작, 구시렁, 군시렁, 굶뜰, 굶실, 궁싯, 까불, 깔깔, 깔, 깜빡, 꺾떡, 경충, 꼬물락, 꾸르륵, 꿀꿀, 꿀락, 꿈바, 꿈작, 끈작, 끄꿍, 끼작, 너달, 너풀, 느물, 능글, 달달, 달싸, 대롱, 덜거닥, 덜그락, 도닥, 뒤똥, 들랑, 따끈, 따끔, 떠듬, 떨그락, 뚜박, 뜨끔, 말똥, 멀똥, 메수, 몽그작, 미적, 미적미적, 비삭, 반질, 반짝반짝, 버드러, 버삭, 번뜩, 번질, 벌름, 병긱, 보글, 부르릉, 부슬, 비비적, 비실, 뻘들, 뻘질, 뻘주, 산들, 셀쭈, 서걱, 섬박, 수선, 스멀스멀, 시근벌떡, 시시닥, 싱글, 씹씩, 썩썩, 쏘삭, 쑤군덕, 쑥덕, 썰룩, 아물, 양양, 어롱, 엉겨주춤, 얼장, 오싸, 움죽, 움송, 외글외글, 와드랑, 웅웅, 우당탕, 우르릉, 우물, 우물쭈물, 옥싯, 움작, 움짙, 웅얼-, 이기죽, 재갈, 조물락, 주물락, 주찰, 지근, 지작, 지찰, 진득, 질박, 째까, 짹짹, 쩌박, 쭈쭈, 쭈긱, 쭈뻐, 쭈긱, 찰랑, 철각, 철씩, 추근, 치랑, 칭얼, 쿨락, 쿵쿵, 키득, 타박, 툃탁, 투닥, 툄들, 통탕, 파들, 팔랑, 퍼득, 필락, 푸푸, 하느작, 할딱, 헤헤, 헉헉, 호호, 화르르, 황망, 활활, 후루룩, 휘번덕, 혼맹, 흘끔, 흥창, 희희낙락, 희히닥, 히들, 힐끔

접미사 ‘-거리.’가 파생에 참여한 동작 동사의 출현 빈도수는 150만 어절에서 512회에 달하고 있고 어근의 총수는 311개이다. 이 중 3회 이상 출현한 어근의 수가 100개이며, 나머지는 1회 또는 2회의 출현 횟수를 보이고 있다.

예외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어근이 의성어나 의태어로서 이들은 음성 상징어 범주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거리’가 의성어나 의태어 어근과 결합하여 동작 동사를 파생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성과가 올바른 것임이 입증되고 있다.⁶⁾

2) ‘-대-’의 선행 어근

접미사 ‘-대.’의 동작 동사의 출현 빈도수는 150만 어절에서 149회이다. 출현한 어근의 총수는 75개로서, ‘-거리’와 결합하는 어근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해당 어근 전부가 음성 상징어 범주에 속하고 있다.

(2)

| 어근 | 출현 빈도 | 어근 | 출현 빈도 | 어근 | 출현 빈도 | 어근 | 출현 빈도 |
|------|-------|------|-------|-------|-------|------|-------|
| 투덜 | 11회 | 쭈근 | 2회 | 미적. | 1회 | 웅성. | 1회 |
| 으스 | 10회 | 술렁 | 2회 | 말똥 | 1회 | 웅얼. | 1회 |
| 꿈틀 | 6회 | 스말 | 2회 | 미적미적. | 1회 | 으르렁 | 1회 |
| 수근 | 6회 | 조잘 | 2회 | 바둥. | 1회 | 으시. | 1회 |
| 허우적. | 6회 | 주철. | 2회 | 버둥. | 1회 | 으쓱. | 1회 |
| 깔깔 | 5회 | 집적 | 2회 | 부들. | 1회 | 지질. | 1회 |
| 번들 | 5회 | 칭얼 | 2회 | 부스타 | 1회 | 찹끔 | 1회 |
| 낄낄 | 4회 | 흥창 | 2회 | 복적. | 1회 | 졸랑 | 1회 |
| 빈정 | 4회 | 구두덜. | 1회 | 비아냥 | 1회 | 출렁 | 1회 |
| 허둥 | 4회 | 구시렁. | 1회 | 비쭈 | 1회 | 킁킁 | 1회 |
| 헉헉 | 4회 | 궁긱궁긱 | 1회 | 비틀. | 1회 | 하늘. | 1회 |
| 킬킬 | 3회 | 깎죽 | 1회 | 빙글. | 1회 | 허허. | 1회 |
| 딤방 | 3회 | 나불 | 1회 | 빠각. | 1회 | 후들. | 1회 |
| 우쭈 | 3회 | 나풀 | 1회 | 빠죽. | 1회 | 희희닥. | 1회 |
| 중얼 | 3회 | 날름 | 1회 | 소근 | 1회 | 힐끔 | 1회 |
| 공공 | 2회 | 너덜 | 1회 | 생글. | 1회 | 멈칫 | 1회 |
| 넘실 | 2회 | 더듬 | 1회 | 썰기죽 | 1회 | 우물. | 1회 |
| 바글바글 | 2회 | 두리반. | 1회 | 씨근 | 1회 | 우물쭈. | 1회 |
| 서성 | 2회 | 득살 | 1회 | 와글. | 1회 | | |

6) 조남호, 「현대국어의 파생접미사 연구」, 『국어연구』, 85(1988); 고영근, 『국어 형태론 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송철의,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국어학 총서』, 18(1992)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선행 연구 업적들이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어근들을 음성 상징어의 범주로만 국한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근의 속성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은 다음 절에서 다룰 것이며, 선행 연구 업적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될 것이다

3) ‘-이-’의 선행 어근

이제 접미사 ‘-이’와 결합하는 어근들에 대하여 살펴 보자. 총 150 만 어절에서 ‘-이’ 파생 동사가 출현한 횟수는 824 회이다. 그러나 출현 어근의 총수는 47 개로 ‘-거리’의 6분의 1 수준, ‘-대’의 4분의 3 수준에 그치고 있다.

(3)

| 어근 | 출현 빈도 | 어근 | 출현 빈도 | 어근 | 출현 빈도 | 어근 | 출현 빈도 |
|-----|-------|-----|-------|-----|-------|------|-------|
| 움작- | 442 회 | 뒤작- | 8 회 | 헐떡- | 3 회 | 끄작- | 1 회 |
| 끄닥- | 62 회 | 번득- | 7 회 | 홀쩍- | 3 회 | 느작- | 1 회 |
| 망설- | 51 회 | 깜박- | 6 회 | 글썩- | 2 회 | 덜렁- | 1 회 |
| 반짝- | 35 회 | 서성- | 6 회 | 금적- | 2 회 | 만지작- | 1 회 |
| 속삭- | 31 회 | 들썩- | 5 회 | 깜박- | 2 회 | 삐죽- | 1 회 |
| 지끈- | 24 회 | 일렁- | 5 회 | 다독- | 2 회 | 서걱- | 1 회 |
| 들머- | 22 회 | 출렁- | 4 회 | 만작- | 2 회 | 웅성- | 1 회 |
| 뒤작- | 17 회 | 껌박- | 3 회 | 살랑- | 2 회 | 으쓱- | 1 회 |
| 허닥- | 17 회 | 번득- | 3 회 | 홀쩍- | 2 회 | 토닥- | 1 회 |
| 번쩍- | 13 회 | 술렁- | 3 회 | 간질- | 1 회 | 퍼덕- | 1 회 |
| 울먹- | 11 회 | 울렁- | 3 회 | 까닥- | 1 회 | 희번덕- | 1 회 |
| 펼락- | 9 회 | 과닥- | 3 회 | 깜빡- | 1 회 | | |

이러한 출현 양상은 ‘-이’가 세 접사 중에서 가장 생산성이 약한 접사임을 통계적으로도 입증해 준다. 즉, 새로운 어근과 결합하여 새로운 파생어를 생산하는 능력이 가장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이’ 파생 동사의 출현 횟수가 ‘-대’ 파생 동사의 출현 횟수보다 월등히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일단 파생 과정을 거쳐 완전히 어휘화된 단어들에 핵심적인 서술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 선행 어근의 속성 기술

1) ‘-거리-’ 선행 어근의 속성

‘-거리’에 선행 결합하는 어근에 대해서 사전은 아래 (4)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4)

ㄱ. 시늉말 따위의 어찌씨다운 뿌리 『우리말 큰사전』

- ㄴ. 동작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일부 어근. 『표준 국어대사전』
- ㄷ. 흉내말, ‘거들먹 비아냥 따위의 말 『연세 한국어 사전』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세 사전에서의 설명을 종합하면, 접미사 ‘-거라-’와 결합하는 어근은 음성 상징어 범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물론 (4ㄱ)의 ‘어찌씨(부사)다운’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는 품사 분류의 모호함이나, (4ㄷ)에서 언급하고 있는 ‘흉내말’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거들먹, 비아냥’ 등의 처리 문제가 보다 엄밀하게 기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선행 연구 업적들의 기술이 우리가 추출한 목록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위의 사전 기술이 해당 어근의 대표적인 속성을 제시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선행 연구 업적은 해당 어근의 성격을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거라-’의 후접이 가능한 환경은 동작성 어근과 상징어(반복형도 가능), 부사어 등이며,⁷⁾ 여기에 체언과 불규칙적 어근을 추가할 수 있다.⁸⁾ 이상의 논의들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어근의 동작성인데, 이들에게는 적지 않은 예외가 있다.

(5)

- ㄱ. 끈적거리다, 푸석거리다⁹⁾ 느물거리다.
- ㄴ. 서성거리다.

(5)는 ‘-거라-’와 결합하는 어근들이 모두 동작성을 수반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예들이다. (5ㄱ)의 경우는 세 어근 모두 동작성이라는 의미 개념보다는 사물의 상태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들도 음성 상징어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들 각각이 ‘끈적거리는 점액질’에 내재된 동작성, ‘끈기가 없는 물체의 상태나, 그러한 물

7) 조남호, 위의 논문(1988), 58~64 쪽과 송철의 위의 논문(1992), 189~193 쪽 참조

8) 고영근, 앞의 책(1989), 607쪽 참조. 고영근의 위의 책(1989)과 임홍빈·장소원, 『국어문법론 I』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5) 등에 따르면 어근은 크게 규칙적 어근과 불규칙적 어근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품사 분류상 독립된 품사로서 통합 관계가 대체로 자유로운 반면 후자는 종래의 어원적 어근(고영근, 위의 책(1989), 503쪽)을 뜻하는 것으로 품사 분류가 어렵고 제약된 통합 관계 양상을 보이는 것들이다.

9) ‘푸석거리다’는 세종 계획 말뭉치 자료에서 한 번도 출현하지 않은 어형이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세 사전에는 모두 등재되어 있다.

체가 움직일 때 나는 소리'를 형상화할 때 상정할 수 있는 동작성, 혹은 '비굴하거나 사악한 태도로 집적거리는 동작이 지속되는 상태'에 포함된 동작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다시 말해서 동작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확대하여 일반적인 상태성에는 동작성이 전제되어 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결국 '그 상태를 이루게 하는 모종의 동작'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의 귀결점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관념론적인 처리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상태성은 필연적으로 동작성을 전제로 하고, 동작성 자체도 시간을 무한히 분해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상태성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5ㄱ)과 같은 성격의 어근들은 그 자체로 동작성보다는 상태성을 지닌 어근으로 파악함이 옳을 듯하다.¹⁰⁾

한편 동작성을 증시하는 관점에서는 (5ㄴ)도 쉽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서성'과 같은 예는 확실한 상태성 자질을 갖고 있는 어근이라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천편일률적으로 동작성을 부여할 수도 없다. 또한 의성어나 의태어로 상정하기도 어렵다. 다음의 예를 보자

(6)

- ㄱ. 중얼중얼거리다.
- ㄴ. 깔깔거리다.
- ㄴ'. 깔깔깔거리다.
- ㄷ. *서성서성거리다

(6ㄱ)이나 (6ㄴ)과 같이 음성 상징어는 첩어성을 지닐 수도 있다.¹¹⁾ 예를 들어 (6ㄱ) '중얼'의 경우에는 비록 말뭉치 자료에서 중첩형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절한 맥락이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문장이나 담화에 중첩형으로 출현할 수 있다.

10) 이은섭, 「국어의 동작 동사 파생에 대하여」, 『국어학 논집』 3(1998).

11) 임흥빈·장소원, 앞의 책(1995)에서는 출렁-거리다, 덜컹-대다, 반짝이다 등의 예를 들면서 이들 어근 또는 의성어나 의태어 부사가 '-거리-' 접미사와 결합할 때, 첩어성이 상실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깔깔깔', '스멀스멀' 등의 중첩형이 검색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해당 어근과 접미사의 결합이 첩어성을 상실하도록 유인하는 결정적인 기제는 아닌 듯하다.

음성 상징어의 첩어성에 관한 더욱 흥미로운 현상은 (6ㄴ)과 (6ㄴ')에서 발견된다. 기본적으로 일음절 중첩형인 '깔깔'은 그 자체만으로도 완결된 첩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반복형이 출현할 필요가 없다. 물론 '깔'이라는 어근을 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을 '끄덕끄덕'이나 '기웃기웃' 등과 동일한 중첩형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뚝치 자료에서 (6ㄴ')과 같은 어형이 검색되었다. 또한 음성 상징어에서 일음절 중첩형의 대부분은 그 일음절 단독형 어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참고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어근이 음성 상징어가 아닌 경우에도 나타난다. '땀을 뻘뻘 흘리다* 땀을 뻘 흘리다', '살살거리다* 살거리다' 등을 참조할 수 있다)을 놓고 볼 때 '깔깔'을 중첩형 어근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 '서성'의 경우는 판이한 양상을 보인다. 이 어근이 일반적인 음성 상징어이자, '-거리'와 결합하는 어근의 통상적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중첩형인 (6ㄷ)도 성립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직관으로는 그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결국 현재의 상황에서 '서성'이 어떠한 의미 자질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다. '서성'이 나타내는 속성 중에서 동작성 또는 상태성이 존재하는지, 혹은 이 어근이 전형적인 음성 상징어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상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기존의 연구에서 규정한 접미사 '-거리'와 결합하는 어근들의 설명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7)과 같이 '-거리'와 결합 가능한 어근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7)

'-거리'와 결합 가능한 어근: 불규칙적 어근 범주에 포함되는 동작성 어근과 일부 상태성 어근, 부사에 속할 수도 있으나 체언적 속성의 명사에는 속할 수 없는 일부 어근.

2) '-대-' 선행 어근의 속성

접미사 '-대'와 결합하는 어근의 일반적인 성격은 '-거리'의 경우와 대동소이

한 듯하다. 목록상의 어근이 전부 음성 상징어였으며, 중첩형(깁깁, 바글바글, 미적미적, 궁깃궁깃 등) 어근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어근들 역시 동작상(꿈틀, 두리번, 멈칫-, 허우적-, 힐끔- 등)이나 상태성(번들-)을 지니고 있었으며, ‘서성-’과 같이 그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불규칙적 어근도 포함되어 있었다. 형태적 차원을 벗어나서 품사적으로 체언에 귀속될 만한 어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¹²⁾ 대부분의 어근들이 적절한 맥락 하에서 부사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도 ‘-거라’ 결합 어근과 유사한 점이었다.

그러나 ‘-대’와 ‘-거라’가 완전히 동일한 성격의 어근과 결합하여 동사를 과생시킨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본고에서 참고하고 있는 사전에서는 ‘-대’의 선행 결합 어근을 다음 (8)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8)

- ㄱ. 덜랑~다, 까불~고 『우리말 큰사전』
- ㄴ. 접사=~거리다 『표준 국어대사전』
- ㄷ. 일부 흥내말 부사 『연세 한국어 사전』

(8)의 사전 기술은 전 절에서 고찰한 ‘-거라’의 선행 결합 어근에 대한 기술보다 훨씬 피상적인 차원이다. 이는 (8ㄴ)처럼 ‘-거라’와 ‘-대’를 동일한 기능의 접미사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즉 (8ㄴ)에 의하자면 두 접사가 완전히 동일한 어근을 취하므로 어느 한 쪽에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라면 다른 한 쪽과도 결합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두 접미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지만 생산성에서만 차이가 나는 형식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접미사에 선행하는 어근 전부를 기계적으로 호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음 (9)의 예를 살펴 보자

(9)

- ㄱ. 으스대다/으시대다.

12) ‘-거라’에 결합하는 어근 중에서는 ‘얼쩡도 하지 마라’의 ‘얼쩡(-)’이나, ‘수선을 떨다’에서의 ‘수선(-)’ 등 제한적이거나 체언적 양상을 보이는 성분들이 발견된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말뭉치에서 추출한 실질적인 어근 목록에서는 접미사 ‘-대’와 결합한 어근 중에 이러한 성격의 어근은 보이지 않는다.

- ㄱ. *으스거리다* 으시거리다
- ㄴ. 나(=나부)대다, 몽그대다, 어기대다, 어리대다
- ㄷ. *나(=나부)거리다, *몽그거리다, *어기거리다, *어리거리다.

(9ㄱ)은 말뭉치 자료에서 추출된 예이고, (9ㄴ)은 말뭉치 자료에서 검색되지는 않았지만, 『표준 국어대사전』 등의 사전에서 발견한 예들이다 (9 ㄱ) 과(9 ㄴ) 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어근은 ‘-거리’ 접미사와의 결합이 불가능하고 단지 ‘-대’ 접미사와 결합할 수 있을 뿐이다.¹³⁾ 이상의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일단 접미사 ‘-대-’에 결합하는 어근의 성격을 아래 (10) 과 같이 정리해 보자

(10)

‘-대’와 결합 가능한 어근: 불규칙적 어근 범주에 포함되는 동작성 어근과 일부 상태성 어근, 부사에 속할 수도 있으나 체언적 속성의 명사에는 속할 수 없는 일부 어근. 단, 이들 어근 중 일음절의 어근도 존재한다.

3) ‘-아-’ 선행 어근의 속성

‘-아-’는 앞에서 다룬 ‘-거리’나 ‘-대’에 비해 그 생산성이 지극히 낮은 접미사이며 어근의 총수도 매우 적다. 우선 사전에서 기술되고 있는 ‘-아’ 결합 어근의 성격부터 살펴보자.

(11)

- ㄱ. 시늉말 따위의 어찌씨다운 뿌리 『우리말 큰사전』
- ㄴ. 동작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일부 어근. 『표준 국어대사전』
- ㄷ.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흉내말의 어근. 『연세 한국어 사전』

(11 ㄱ)과 (11 ㄴ)에서는 ‘-거리’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어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11 ㄷ)은 ‘-아’와 결합하는 선행 어근이 ‘-거리’와 결합하는 선행 어근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기술을 개진하고 있다.

13) 본고는 ‘-거리’와 ‘-대’가 어근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결합 상의 차이가 두 접미사가 갖는 의미 속성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본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개진할 것이다.

그러나 사전들의 이러한 기술은 ‘-아’가 결합하는 어근의 속성이 보여주는 미세한 속성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가 표 (3)에서 추출한 목록을 고찰해 보면 이들 어근은 대부분 음절말 자음이 ‘ㄱ’과 ‘ㅇ’이다. 이러한 특성이 이미 기존의 논의에서는 활발하게 기술되었지만, 사전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¹⁴⁾ 더욱이 우리가 추출한 어근의 목록 중에서 ‘망설’, ‘지꼴’ 등의 어근은 필자의 직관에 의하자면 다음 (12)와 같이 ‘-거라’와 결합할 수 없다

(12)

*지꼴거라다, *망설거라다.

이들의 사전 등재 여부를 보았을 때 『연세 한국어 사전』에서는 (12)의 어형이 제외되어 있다. 물론 그밖의 두 사전에서는 위의 어형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만, 이는 문학적 표현에 다른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아’에 선행할 수 있는 어근 중에서 ‘깔깔’이나 ‘웅웅’과 같은 일음절 중첩형 어근, ‘들락날락’이나 ‘바글바글’과 같은 반복형 어근이 발견되지 않는다 아울러 앞의 ‘-대’의 경우에서 드물게나마 발견할 수 있었던 일음절 어근도 발견되지 않는다. 역시 ‘-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말뭉치 자료에서 추출한 어근 중 체언적 양상을 보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대’와의 관계마저 고려한다면 ‘-아’와 결합하는 어근의 제약 양상은 더욱 심화된다. 이러한 현상은 접미사 ‘-아’가 지니고 있는 생산성이 상당히 약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제 이상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아’에 선행하여 결합하는 어근의 성격을 아래 (13)과 같이 정리해 보자.

(13)

‘-아’와 결합 가능한 어근: 불규칙적 어근 범주에 포함되는 동작성 어근과 일부 상태성 어근, 부사에 속할 수는 있으나 체언에는 속할 수 없는 일부 어

14) 김영희, 「한국어의 거듭상」, 『한글』, 156(1975); 이진식, 「현대국어의 반복복합어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1988); 조남호, 앞의 논문(1988); 송철의, 앞의 논문(1992); 이은섭, 앞의 논문(1998) 등을 참조할 것.

근. 이들 어근은 대부분 말음절의 음절말 자음이 ‘ㄱ’과 ‘ㅇ’이며 드물게는 ‘ㄹ’인 어형도 존재한다.¹⁵⁾

III. 접미사 ‘-거리-, -대-, -이-’의 이질적 속성

전 장에서 우리는 접미사 ‘-거리’, ‘-대’, ‘-이’와 결합하는 동사 어근의 목록을 추출하고, 그 속성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본 장에서는 각각의 접미사가 어근들과 결합할 때 보이는 차이와 그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어근 의미 속성 분석의 문제점

사전과 선행 연구 업적들에서 세 접미사에 결합하는 어근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을 동작성으로 규정했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동작성이라는 개념을 극히 피상적인 차원에서, 혹은 엄밀히 규정함이 없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어근과 접미사가 지니고 있는 속성의 일부를 왜곡하거나 제대로 구명하지 못하고 있다.

(14)

- ㄱ. 꼬닥, 두리번, 기웃.
- ㄴ. 번들, 너덜.
- ㄷ. 웅성, 비그닥, 훌쩍.
- ㄹ. 서성, 망설, 지껄.

(14 ㄱ)은 동작 자체를 형상화한 의태어 어근으로 동작성이 드러나는 전형적인 예들이다. 그러나 의태어에 속하는 어근들이 모두 (14 ㄱ)과 같은 성격을 보이는

15) 우리는 접미사 ‘-이’와 ‘-대’가 보여주는 어근과의 결합 양상을 기술하면서 이들을 동일한 층위에서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일단 각각의 접미사가 보여주는 결합 양상의 차이가 이들의 생산성 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유도하는가가 관심의 초점이므로 익명의 논평자의 지적처럼 음절수와 음절 말 자음이라는 이질적인 기준이 본고의 설명력을 약화시키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것은 아니다. (14ㄴ)도 (14ㄱ)과 마찬가지로 의태어에 속하는 어근들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동작성 자체와는 거리가 있다.

(14ㄴ)의 예에서 ‘번들’은 『표준 국어대사전』에서 ‘거죽이 아주 미끄럽고 윤이 나는 상태’ 정도로 기술되고 있다. ‘너털’은 같은 사전에서 ‘여러 가닥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상태’를 형상화한 어근으로 기술되어 있다. 즉 이들은 구체적인 동작을 직접적으로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 사전의 기술에서 ‘윤이 나다’나 ‘늘어져 있다’ 등의 기술을 통해 동작성을 유추하고 상정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이 어근들이 동작성 자체보다는 상태성에 가까운 의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14ㄷ)의 예들은 의성어 어근들이다. 역시 동작성과의 직접적 연계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즉 ‘웅성’, ‘비그닥’, ‘홀쭉’ 등의 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맥락에서의 동작이 필연적으로 전제된다. 그러나 동작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었다는 것과 이들 어근들이 동작성을 주요 의미 속성으로 지니며 그 동작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들이 구현하고 있는 것은 음성이나 음향 그 자체이지, 그러한 음원(音源)의 활성화(活性)이 되는 동작이 아니다.

(14ㄹ)의 예들은 보다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다. ‘서성’은 그 성분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사전에서는 ‘서성’이 보유한 단독의 의미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현대 국어적 관점에서는 ‘서성’이 다른 어근과는 달리 어원의 규정이나 품사의 분류가 용이하지 않은 불규칙적 어근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어근이 파생에 참여하여 형성된 동작 동사의 설명을 참고로 그 의미를 기술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우리말 큰사전』, 『표준 국어대사전』, 『연세 한국어 사전』에서 기술되고 있는 ‘서성거리다’의 의미는 ‘한곳에 있지 않고 자꾸 주위를 왔다 갔다 하다’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서성’ 자체의 의미를 전체 동사의 의미 상에서 추출해 내어야 하는데, 이 작업은 다른 어근들의 경우와 달리 우리를 곤혹스럽게 한다.

‘망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망설’ 자체의 의미 기술은 사전에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이 어근이 참여하는 파생 동사의 의미만이 기술되어 있다.¹⁶⁾ 역시

16) ‘망설’의 사전적 기술이 보이는 이러한 문제점은 단순히 사전에서의 의미 기술 차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파생어나 어근 등 형태론적 단위나 형태론적 단위와 관련된 어휘들을 어

‘망설’ 자체의 의미가 제대로 구명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어근이 동작성을 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언이 불가능하다.

‘지꼴’의 경우는 ‘큰 소리로 자꾸 떠드는 모양’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앞의 ‘서성’이나 ‘망설’의 경우에 비하면 음성 상징어적인 면모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럼에도 이 어근이 지니고 있는 주된 의미 속성이 동작성을 띠고 있는지, 혹은 ‘큰 소리’라는 의성성에 무게 중심이 실리는지 불명확하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우리는 기존 연구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어근의 동작성이라는 개념이 실은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어근들의 보편적인 의미 속성이기는 하지만, 설명되어야 할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어근 의미 속성에 대한 대안적 분석

우리는 전장에서 어근의 목록을 제시하고, 목록에 포함된 어근들의 특성을 접미사 별로 간단히 개진해 보았다. 이들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5)

‘-거리-, -대-, -아-’와 결합 가능한 어근: 불규칙적 어근 범주에 포함되는 동작성 어근과 일부 상태성 어근, 부사어나 체언에 속하기도 하는 일부 어근 대체적으로 이들 어근은 어휘 속성상 음성 상징어의 부류에 속한다.

목록에서 추출한 어근의 속성을 일단 (15)와 같이 상정하고, 이들의 의미 속성을 보다 면밀히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각각의 접미사가 파생 과정에서 보여주는 어근과의 결합 양상 중에 특히 분포의 차이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즉 어휘 등재 기준의 엄밀성과 규준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가령 『우리말 큰사전』과 『표준 국어대사전』에서는 이 어근이 ‘-거리-, -대-, -아-’와 모두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연세 한국어 사전』에서는 ‘-아-’ 외만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각각의 사전이 서로 다른 기술 방식에 입각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편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기준인 문법적 관점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14)의 예를 통해서 기존의 논의에서 피상적으로 다루어 왔던 동작성을 상태성이나 그밖의 속성과는 구분하여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추출한 목록의 어근들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6)

- ㄱ. 동작성 의태어 어근
- ㄴ. 상태성 의태어 어근
- ㄷ. 의성어 어근.
- ㄹ. 동작성과 상태성 구분이 모호한 어근.
- ㅁ. 불가해성 어근.
- ㅂ. 체인성 어근.

(16ㄱ)은 의태어 가운데 동작 자체를 음성 상징화한 어근들이다. 예로는 앞에서 제시한 ‘끄덕, 두리번, 기웃’ 등 추출된 의태어 어간 중 상당수가 이 부류에 속한다. 반면 (16ㄴ)의 경우는 의태어에 속하는 어근이 사물의 상태를 구현하고 있는 것들이다. 역시 (14ㄴ)에서 제시한 ‘너덜, 번들’이나 그밖에 ‘끈적’과 같은 어근도 이 부류에 속한다.

(16ㄷ)의 의성어 어근들은 동작이 아닌 소리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동작성을 상징할 수 없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단지 음성이나 음향을 구현하기 위한 동작이나 행위가 전제될 가능성만 존재한다.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의성어는 ‘-거리’와 52회 결합한 것으로 나타난 ‘중얼’이며, 그 뒤를 ‘두근, 투덜, 웅성’ 등이 잇고 있다.

동작성과 상태성 구분이 모호한 어근으로 명명한 (16ㄹ)은 내재된 속성이 동작성인지, 상태성인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어근들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가 엄밀히 구분되지 못하는 예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줄줄, 줄줄, 출출), 우리가 추출한 어근의 목록 중에서도 ‘쫄쫄, 툄툄, 활활, 폭삭’ 등과 같이 유사한 성격의 어형이 존재한다.¹⁷⁾

불가해성 어근 (16ㅁ)은 품사 분류가 불가능하고, 그 의미를 추론하기도 곤란하

17) 신중진, 「현대국어 의성의태어 연구」, 『국어연구』 154(1998), 4-9쪽을 참조할 것.

다. 따라서 형태론적인 결합 양상이나 통사론적인 통합 양상에 극심한 제약을 수반하는 어근들이다. 이들은 고영근¹⁸⁾의 지적을 고려하자면 불규칙적 어근의 부류에 속하며, 아울러 그 의미가 모호하여 철저히 제한적인 용법을 보인다. 목록에서 이러한 양상을 지니는 어근은 ‘움직, 망설’ 등이 발견된다.¹⁹⁾

(16b)은 음성 상징어의 부류에 들지 않고 체언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어근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체언 범주와는 달리 통합 관계 형성시에 제약을 수반하여 특히 조사와의 통합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이들 어근의 특징이다. 이 부류에는 ‘법석, 수선, 황망’이 발견되고 있다.

이제 각각의 접미사와 결합하는 어근들이 위 부류에 어떻게 속하는지에 대하여 그 양상을 살필 차례이다. (15)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각 접미사와 결합하는 어근을 다음 (17)의 표로 제시한다

(17)

| 어근 속성 \ 접미사 | -거리- | | -대- | | -이- | |
|---------------------|---------|-------|-------|------|-------|-------|
| | 개수 | 비율 | 개수 | 비율 | 개수 | 비율 |
| 동작성 의태어 어근 | 203/310 | 65.5% | 42/75 | 56% | 36/47 | 76.6% |
| 상태성 의태어 어근 | 11/310 | 3.5% | 2/75 | 2.7% | 0/47 | 0% |
| 의성어 어근 | 77/310 | 24.8% | 21/75 | 28% | 6/47 | 12.8% |
| 동작성과 상태성 구분이 모호한 어근 | 14/310 | 4.5% | 1/75 | 1.3% | 0/47 | 0% |
| 불가해성 어근 | 2/310 | 0.6% | 3/75 | 4% | 3/47 | 6.4% |
| 체언성 어근 | 3/310 | 0.9% | 0/75 | 0% | 0/47 | 0% |

3. 접미사 ‘-거리-, -대-, -이-’의 동작성

우리는 기존의 연구에서 접미사 ‘-거리-, -대-, -이-’가 어근과 결합하여 동작 동사를 파생한다는 언급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들 접미사가

18) 고영근, 앞의 책(1989).

19) ‘움직.’이야말로 음성 상징어의 범주에 들지 못할뿐더러 자립적으로 범주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는 전형적인 불규칙적 어근이다. 의미 면에 있어서도 ‘움직.’ 자체가 동작성을 구현한다고 볼 수 없다. 접미사와 결합한 후에야 파생 동사 전체의 구성을 통해 동작성이 드러날 뿐이다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동작 동사 파생의 기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추출한 이 접미사들에 의해 형성된 파생어 어형 중에서 동사 이외의 어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이들 접미사의 기본적인 기능이 동작 동사의 파생임을 전제하고 각 접미사들이 보여주는 기능과 속성의 세부적인 차이를 논의함으로써 이들 접미사의 성격을 보다 엄밀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표 (17)에 따르자면, 기존의 논의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동작을 나타내는 어근이 세 접미사와 가장 빈번하게 결합한다. 그러나 이들 접미사 간에는 동작성을 지닌 어근을 선호하는 정도가 다르다. 세 접미사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출현한 ‘-거라’의 경우는 동작성 의태어 어근 의성어 어근 동작성과 상태성 구분이 모호한 어근, 상태성 의태어 어근, 체언성 어근, 불가해성 어근의 순서로 출현 빈도가 드러난다.

한편 사전을 비롯한 기존의 논의에서 ‘-거라’와 대동소이한 접미사로 간주된 ‘-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이 접미사는 세 접미사 가운데 가장 낮은 빈도로 동작성 의태어 어근과 결합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빈도로 의성어 어근과 결합하고 있다. 의성어 어근은 직접적으로 동작성을 구현하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음성이나 음향의 상태를 구현한다. 그러므로 접미사 ‘-대’가 세 접미사 중에서 상태성이 강한 어근과 가장 잘 결합한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²⁰⁾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는 선행 연구도 존재한다. 조남호는 접미사 ‘-거라’와 ‘-대’의 의미 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대’가 갖는 ‘-거라’와의 의미 차이를 ‘동작의 적극성’이라는 의미 자질로 설명하고 있다.²¹⁾ 이러한 논의를 감안한다면, ‘-대’가 갖는 ‘동작의 적극성’이라는 의미 자질이 어근의 의미 속성에 구애되지 않고, 즉 반드시 동작성을 지닌 어근과만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성을 지닌 어근과도 활발히 결합함으로써 동작 동사를 생산적으로 파생시킨다는 견해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20) 익명의 논평자는 위의 기술에 대해 ‘-거라’와 ‘-대’가 의성어 어근과 결합할 때 나타나는 비율의 차이가 3.2%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동작성이 부여되기 어려운 상태성 의태어 어근과 동작성과 상태성 구분이 모호한 어근과의 결합 비율은 오히려 ‘-대’보다 ‘-거라’가 높다는 사항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논평에 따르면 ‘-대’가 가장 강력한 동작 동사 파생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우리의 가정은 보다 더 정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21) 조남호, 앞의 논문(1988)을 참조할 것

이와 관련하여 다른 논거도 제시할 수 있다. 동작성의 차원에서 다음 예문을 주목해 보자.

(18)

- ㄱ. 부초가 바람에 흔들린다.
- ㄴ. 부초가 바람에 흔들거린다.
- ㄷ. 부초가 바람에 흔들댈다.

(18)의 예문들은 모두 동작성 의태어 어근이 결합하여 파생된 동사가 서술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8 ㄱ)은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시킨 예이다. 피동의 개념 상, 우리는 ‘부초의 흔들림’이 외부적 요인인 ‘바람’에 기인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동작성의 차원에서 볼 때, ‘흔들리.’는 능동적 동작성(혹은 ‘동작의 적극성’)이 아닌 수동적 동작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18 ㄴ)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거리.’가 결합한 동사는 ‘흔들거리.’의 예에서처럼 동작의 대상이 주체적으로 행하는 동작이 아닌 경우에도 성립 가능하다.

그러나 (18 ㄷ)의 경우에서와 같이 ‘-대’ 접미사가 결합하여 파생된 동작 동사는 그러한 양상이 불가능하다. 즉, 능동적 동작성을 전제로 한 경우에만 성립이 가능하며, (18 ㄷ)과 같은 수동적 동작성의 환경에서는 그 성립에 이상을 보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접미사 ‘-대’가 여타의 접미사들보다 상태성 어근을 동작 동사로 파생시키는 기능이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아래 (19)와 같이 약정해 보자.

(19)

- 접미사 ‘-거리, -대, -아’ 중에서 ‘-대’가 가장 강력한 동작 동사 파생 기능을 지닌다. 반면에 ‘-거리.’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동작성을 허용한다.²²⁾

22) 그러므로 동작성의 차원에서는 접미사 ‘-대’가 가장 강력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성 측면

한편 자료에서 동작성 의태어 어근과 가장 높은 빈도로 결합하는 접미사는 ‘-이-’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 접미사가 동작 동사 파생에 있어서 가장 미약한 생산성을 지녀서 제한된 속성의 어근과만 결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이 접미사와 결합하는 어근의 수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출현 빈도도 높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이 접미사가 상태성 어근과 결합하는 경우가 없고 의성어 어근과의 결합 빈도도 지극히 낮다는 결과를 통해 우리는 ‘-이-’가 동작 동사 파생에서 가장 미약한 생산성만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세 접미사가 지니고 있는 동작성과의 관련 정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

접미사 ‘-거리, -대, -아’ 중에서 ‘-거리’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동작성을 허용한다. 반면 ‘-대’가 가장 강력한 동작 동사 파생 능력을 지니며, ‘-아’가 가장 미약한 동작 동사 파생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IV. 결론

본고는 국어 동작 동사 파생의 접미사 ‘-거리, -대, -아’가 지니고 있는 제반 현상의 일부를 다루었다. 특히 이들 접미사가 참여하여 파생된 동작 동사들의 동작성에 주목하였는데, 이 동작성이 근본적으로는 위의 세 접미사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 속성임을 입증하는 데 논의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세종 계획의 말뭉치 150만 어절을 자료로 활용하여, 위 접미사들과 결합하는 어근의 목록을 추출하였으며, 이 목록을 분석함으로써 피상적이고 엄밀하지 못한 양상으로 전개되던 동작성의 개념을 나름대로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리, -대, -아’와 결합하는 어근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는 다음 (21)과 같다.

에서는 접미사 ‘-거리’가 가장 활발한 빈도로 동작 동사 파생 과정에 참여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21)

접미사 ‘-거라, -대, -아’와 결합하는 어근의 정체성 : 동작성 의태어 어근, 상태성 의태어 어근, 의성어 어근, 동작성과 상태성 구분이 모호한 어근, 불가해성 어근, 체언성 어근.

한편 우리는 (21)과 같이 분류된 어근의 빈도수를 추적하여, 접미사가 지니고 있는 동작성의 정도를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동작성이 가장 강한 접미사는 ‘-대’이었으며, ‘-거라’가 포괄적인 동작성을 내재하고 있고 ‘-아’가 가장 약한 동작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고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은 여러 부분, 예를 들어 어근의 음절 수 제약과 음절말 자음의 양상의 음운론적 문제와 접미사간의 관련성, 중첩형 어근과 세 접미사의 서로 다른 결합 양상, 그리고 접미사와 보조 용언간의 모호한 경계 양상을 보이는 ‘-대’의 문제 등을 다룸에 있어서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근, 「중세국어 시상과 서법」,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81.
 _____,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_____,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서울 일지사, 1993.
 _____, 『개정판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서울 집문당, 1997.
 고영근·남기심, 『개정판 표준 국어 문법론』, 서울 탐출판사, 1993.
 김석득, 『우리말의 형태론』, 서울 탐출판사, 1993.
 김영희, 「한국어의 거듭상」, 『한글』 156, 1975.
 김지홍, 「몇 어형성 접미사에 대하여」, 『백록어문』 1, 1986.
 김창섭, 「형용사파생 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 58, 1984.
 송철의,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국어학총서』 18, 1992.
 신중진, 「현대국어 의성의태어 연구」, 『국어연구』 154, 1998.
 심재기, 『국어 어휘론』, 서울 집문당, 1982.
 이건설, 「현대국어의 반복복합어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1988.

- 이기문, 『국어사 개설 개정판』, 서울 탐출판사 1972.
_____, 『국어사 개설 신정판』, 서울 태학사 1972.
이병근, 「국어사전과 파생어」, 『어학연구』 22-3, 1986.
이선웅, 「현대국어 보조용언 연구」, 『국어연구』 133, 1995.
이은섭, 「현대 국어 부정문의 통사 구조」, 『국어연구』 140, 1996.
_____, 「국어의 동작 동사 파생에 대하여」, 『국어학 논집』 3, 1998.
이익섭, 「현대국어의 반복복합어의 구조」, 『국어학연구』(백영 정병욱 선생 환갑기념논총 1), 1983.
이익섭·채완, 『국어문법론강의』, 서울: 학연사, 1999.
임홍빈, 「국어의 어근 분리 현상에 대하여」, 『언어』 4-2, 1979.
임홍빈·장소원, 『국어문법론 I』,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5.
임홍빈 외, 『국어 문법 현상의 계량적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조남호, 「현대국어의 파생접미사 연구」, 『국어연구』 85, 1988.
최형용, 「형식명사·보조사·접미사의 상관관계」, 『국어연구』 148, 1997.
허 응,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서울: 샘출판사, 1995.

● 투고일 : 2004. 3. 21.

● 심사완료일 : 2004. 6. 16.

● 주제어(keyword) : 동사 파생(verb derivation), 어근(root), 접사(suffix), 동작성(activeness),
상태성(stativeness), 의태어 어근(mimetic root), 생산성(productivity),
의성어 어근(onomatopoeic root), 체언성 어근(nominal root)